

# 80억 빼돌린 8급 기능직 비리 경악

## 3년간 범죄 아무도 몰라 지자체 감시·관리시스템 허점 드러나

### 아듀 2012 광주 전남 사건·사고

- ① 폭력 일족진 학교
- ② 비리로 법정선 정치인들
- ③ 끊이지 않은 성범죄
- ④ 추락 광주시 행정 신뢰
- ⑤ 최악의 자연재해
- ⑥ 여수공무원 거액 횡령

올 한해 광주·전남지역 일선 공무원들의 횡령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수법이 대담해지고, 횡령 금액도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했다. 시·도민들은 이 같은 비리 공무원들의 횡령에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

추지 못했다. 또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공무원들의 공금횡령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가 전체의 문제로 비치면서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수시청 회계과 8급 기능직 공무원 김모(47)씨의 공금횡령 사건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검찰이 최종수사에서 밝힌 횡령액은 무려 80억7700만원. 건국 이래 단일 공무원 비리 사상 최대 규모라는 쓸쓸한 기록을 남겼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지난 8월 감사원 감찰에서 처음 드러났다. 횡령액도 수사 초기 20억원대에서 수사가 진행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

다. 김씨는 전자결제를 피해 수기로 서류를 작성하면서 3년여 동안 근로소득세, 여수시상품권 판매금, 급여 등을 부풀려 빼냈다. 이 돈으로 부인의 사채 빚을 갚고 고급 아파트와 외제 차를 구매했다. 그러나 은행 잔고는 고작 30만원이었다. 검찰은 김씨 부부 등 7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여수시청도 부랴부랴 전담팀을 꾸려 환수작업에 나섰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이뤄졌다. 앞서 드러난 완도군청 회계과 최모(여·37)씨의 공금 5억원 횡령 사건도 충격적이었다. 감사원 감사에서 비리 사실이 드러난 최씨는 2년 동안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세입·세출 외 현금을 관리하면서 전산자료를 조작해 각종 사업 계약 보증

금, 직원 소득세 등을 빼돌렸다. 광주시 동구청 기능직 공무원 임모(여·44)씨의 수법도 비슷했다. 임씨는 지난 3년간 구청에서 급여와 세입세출을 관리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동료'의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1억 4000여만원을 횡령했다. 강진에서는 군청 9급 공무원이 공금 수천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자체감사결과 적발돼 최근 고발됐다. 송모(35)씨는 모두 23차례에 걸쳐 공금 5000여만원을 제멋대로 썼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올 한해 잇단 공무원 비리 사건은 우리 공무원 사회의 현주소를 단편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며 "청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들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작은 사안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 주요지점 해남·해돋이 시각

지점	해남(12월31일)	해돋이(1월1일)
광주	오후 5시 30분	오전 7시 41분
여수	오후 5시 28분	오전 7시 36분
순천	오후 5시 29분	오전 7시 38분
고흥	오후 5시 30분	오전 7시 38분
무안	오후 5시 33분	오전 7시 43분
완도	오후 5시 33분	오전 7시 39분
목포	오후 5시 33분	오전 7시 42분
흑산도	오후 5시 37분	오전 7시 45분

(자료:한국천문연구원)

### 구름 사이로 보는 계사년 새해 일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2013년 첫 일출을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내년 1월1일 광주·전남 지역은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하 1도 사이로 전망된다. 광주·전남지역에서 내년 1월1일 첫 해는 여수에서 오전 7시36분에 가장 먼저 뜰 것으로 보인다. 이어 고흥·순천(오전 7시38분), 완도·장흥(오전 7시39분), 광주(오전 7시41분) 등이다. 한편 28일 광주·전남지역에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해돋이 07시 40분  
☾ 달질 17시 31분

### 오늘 날씨

빙판길 조심하세요

주말에도 눈소식 있으니 대비하세요

광주	흐리고 눈 또는 비	1/5°C	목포	흐리고 눈 또는 비	1/5°C	여수	흐리고 눈 또는 비	2/5°C	나주	흐리고 눈 또는 비	-1/5°C	완도	흐리고 눈 또는 비	2/7°C	구례	흐리고 눈 또는 비	1/5°C	강진	흐리고 눈 또는 비	1/6°C	해남	흐리고 눈 또는 비	1/7°C	장흥	흐리고 눈 또는 비	1/7°C	순천	흐리고 눈 또는 비	0/5°C	영광	흐리고 눈 또는 비	-2/4°C	진도	흐리고 눈 또는 비	2/7°C	전주	흐리고 눈	-2/3°C	군산	흐리고 눈	-2/3°C	남원	흐리고 눈	-3/2°C	흑산도	흐리고 눈 또는 비	3/7°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전) 바다	중랑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풍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1.0~2.0m	관심	보통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2.0~4.0m			

(오후) 바다	중랑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풍	0.5~1.5m	목포	01:40	07:07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1.0~2.0m	여수	14:30	19:51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1.0~2.0m		09:14	02:42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2.0~4.0m		21:12	15:17

◇주간날씨

날짜	29(토)	30(일)	31(월)	1/1(화)	2(수)	3(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1/6	-2/1	-6/1	-4/2	-4/1	-6/-1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광주 실력저하, 특성화고 때문이라고?

### 장항국 광주시교육감 “중위권 학생들 대거 빠져 나간 탓”

장항국 광주시교육감은 27일 '실력 광주' 위상 추락과 관련 "특성화고 탈락자들이 일반고에 배정되다 보니 (일반고의)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조금 높아졌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고교 실력저하를 우려하는 부모들의 우려를 씻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진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신년을 앞둔 서면 인터뷰에서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 보니 중위권대 성적의 학생들이 대거 특성화고에 진학하게 됐다"며 "올해만 해도 920명의 학생이 특성화고 전형에 탈락해 일반고에 배정된 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광주 일반고의 학업성취도 조사 결과를 보면 과목별 보통 학력 이상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같거나 다소 떨어졌 것은 사실이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반 고교에서는 단편적인 진단 보다 학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교의 한 교장은 "자녀의 입시를 앞둔 고교 학부모의 학력저하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단순한 원인을 찾기보다는 체계적인 진단과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고교의 한 교감은 "학생이 휴일 학교에 나와서 자습하고 싶어도

교육청이 규제하기 때문에 사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마음껏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교육감은 논란이 된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 150억원이 지원만 되면 즉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초 광주 북구 매곡동 옛 전남도교육청 청사 부지를 활용해 새청사를 신축하려다 "불요불급하다"는 여론에 따라 백지화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모든 미성년자·여성도

### 'SOS 안심서비스' 가입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여성이 'SOS 국민안심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전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295만명과 중·고등학교 377만명, 여성 2000만명이다. 올해까지는 서울과 경기 남부, 전남, 제주 등 일부 지역 초등학생으로 서비스 대상이 한정됐었다. /연협뉴스

### 헌재 "전자팔찌 소급적용" 합헌

전자팔찌 부착 명령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부칙 2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시행 당시 이미 형 집행 중이거나 형 집행을 종료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소급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부칙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

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 형식과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강국·박한철·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에게는 소급 적용하는 부분은 일부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고, 송두환 재판관은 전자장치 부착은 형벌적 성격이 강해 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견해를 냈다. /연협뉴스

since 1982

## 창업30주년 국제보청기

# 30% 할인 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새로운 출발 New C.I

www.geic.or.kr

## 깨끗한 환경 행복한 시민

광주시민의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을 책임지는 사명감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와 운영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인 **광주환경공단**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 광주환경공단

ENVIRONMENTAL CORPORATION OF GWANGJU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79(치평동)  
TEL.062-603-5200 / FAX.062-603-5252